

G초등학교에 적용한 결과는 공감능력의 인지적 공감으로 조망취하기, 정서적 공감에서 각성 부분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정서지능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석한 실험반에서는 정서인식, 정서활용 부분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대조반에서는 오히려 정서인식에서 점수가 낮아지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표 1-30. M초등학교 프로그램 사전사후 언어폭력성 비교

	Item	Pre.Mz±SDy	PostM±SD	t	p
E	욕설	12.31±2.88	11.31±2.46	2.028	0.053
	조롱	9.54±2.77	9.04±3.63	0.769	0.449
	희롱	7.96±2.47	7.54±2.45	0.836	0.411
	협박	6.38±2.19	6.23±2.45	0.485	0.632
	저주	5.58±1.79	5.27±2.09	0.941	0.356
	언어폭력성 전체	41.77±9.45	39.38±9.76	2.075	0.048
C	욕설	11.29±4.30	11.45±3.79	0.297	0.767
	조롱	9.00±4.03	8.65±3.43	0.718	0.476
	희롱	7.53±2.94	7.90±2.79	0.901	0.372
	협박	6.04±2.65	6.20±2.17	0.387	0.700
	저주	5.43±2.18	5.14±1.84	0.805	0.425
	언어폭력성 전체	39.29±12.68	39.35±11.26	0.041	0.968

^z Mean ^ystandard deviation.

*, **, *** : p <0.05, 0.01, 0.001 level by paired t-test

이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가 시작됨으로 정서, 공감능력이 아동시기와는 다른 변화를 가진다. 공감배려증진 프로그램을 경험해봄으로써 정서적인 영역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옴으로 생각된다.